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12년 3월 5일(월) 14:3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자원개발전략과 전민영 과장(2110-5530), 김정두 사무관(2110-5526)		

"UAE 유전 최종 본계약 체결"

- 5.7억배럴[발견원시부존량] 확인, 1,000억 배럴 유전 寶庫
아부다비의 1/10 면적으로 자원량 추가 가능 -

① 1,000억 배럴의 세계 유전개발 프리미어리그 UAE 진출 구체화

- **3월부터 사업 착수, 이르면 2014년부터 생산개시, 일일 생산량 최대 4만 3천 배럴 기대**
- **비상시 100% 도입 가능, 실질적으로 2011년 자주개발물량(46.5만배럴) 기준 9.2%의 원유 확보 효과**
- **아부다비 전체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와 공동 탐사를 통해 추가 자원량 확보 기대(추가 확보 자원량에 대해 우리 지분만큼 배타적 권리 보유)**
- **10억 배럴 이상 생산광구 확보 협상 가속화 전망**
  - **※ 아부다비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례적으로 서명식 관계자들과 별도 접견자리를 마련하고 금번 본계약의 중요성을 강조, 양국간의 "100년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 확인**

② 2009년 원전건설계약에 이어 에너지분야 협력 가속화

③ 세계 최대 국부펀드(약 6,300억불) 운영국인 UAE와 협력 확대로 제2의 중동 붐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12.3.5(월), UAE 아부다비에서 한국 컨소시엄(석유공사, GS 에너지)과 UAE 국영석유사인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가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힘

○ 한편, 모하메드 왕세자(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는 금번 계약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당초 서명식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이례적으로 서명식 관계자들과 별도 접견자리(17:00, 왕세자궁)를 마련하고 금번 본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간의 "100년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더 나아가 향후 유전개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더욱 밝게 해 줬음

□ 막후 협상을 주도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UAE 최고 통치자인 아부다비 국왕, 왕세자와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무한한 신뢰 없이는 금번 최종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석유공사-ADNOC간 서명식 개요

◈ 일시/장소: '12.3.5(월) 09:30~10:00, UAE 아부다비 석유공사
* UAE 아부다비 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 '12.3.5.(월) 14:30~15:00)

◈ 참석자: (우리측) 지경부 장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주 UAE 대사, 석유공사 사장, GS 칼텍스 회장
(UAE) 최고석유회의 사무총장, ADNOC 총재

◈ 계약 체결사항: UAE 아부다비 3개 미개발 유전 본계약 체결

- 대상광구 : 2개 육상(Area 1, Area 2), 1개 해상(Area 3) 유전
- 계약형태 : ADNOC이 소유한 조광권 지분참여, 공동운영
- 계약기간 : 30년
- 국내 지분 : 40%(한국석유공사 34%, GS에너지 6%)
- 국내 도입 : 비상시 3개 유전 전체 생산 원유 100% 도입

<본 계약 체결의 의의>

□ 금번 계약 체결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개국만이 진출해 있는 유전개발의 프리미어리그이자 석유 매장량 1천억 배럴의 세계 6위 매장국인 UAE에 본격 진출하게 됨

＊ 1970년대 일본이 진출한 이후 UAE가 유전을 개방한 첫 국가로 기록

○ UAE는 고품질의 원유*와 안정적인 투자 여건도 보유

＊ 중동지역 최고 품질인 고급 경질유(API 기준 35도, 여타중동지역 30도)

□ 중동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54%, 매장량 상위 10개국 중 절반이 속해 있는 핵심 유전지역이나, 진출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조 3,832억 배럴, 중동 석유 매장량 7,525억 배럴

＊＊ 1위 사우디(2,465억 배럴), 2위 베네수엘라(2,112억 배럴), 3위 이란(1,370억 배럴), 4위 이라크(1,150억 배럴), 5위 쿠웨이트 (1,015억 배럴), 6위 UAE (978억 배럴)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6월 자료)

○ 전후 빠른 경제 재건을 위해 해외기업에 유전을 개방한 이라크*를 제외하면, 사우디, 쿠웨이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직영 체제를 유지** 하고 있어 유전개발 참여 가능성이 희박

＊ 이라크 유전 입찰시에도 일정 규모의 자격을 갖춘 해외 석유회사만 참여 가능

＊＊ (ⅰ)사우디 : 국영석유회사(Saudi Aramco)를 통하여 1973년부터 자원 국유화
(ⅱ)쿠웨이트 : 자국 자원에 대한 외국투자를 헌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KOC)를 통하여 1975년부터 자원 국유화

○ UAE는 사실상 추가로 진출 가능한 유일한 국가

□ UAE의 경우도 진입 장벽이 매우 높지만, 정상외교 등을 통해 구축된 양국간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자원개발역사가 35년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특별히 문호를 개방

○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함께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한 GS에너지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민간 기업에까지 기회가 확대

□ 금번 본 계약 체결을 통하여 UAE 유전으로의 추가 진출 가능성도 한층 증대

○ 현재 진행 중인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 우선 참여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금번 계약을 시발점으로 우리 기업의 향후 UAE 유전개발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3개 미개발 유전의 경제성 및 향후 개발 계획>

□ 이날 본 계약을 체결한 3개 미개발 유전은 '11년 3월에 주요조건 계약(HOT, Heads Of Terms)을 맺고 협상을 진행해 온 광구

○ 이미 탐사 시추를 통하여 석유 부존이 확인(발견원시부존량* 5.7억 배럴)된 개발 직전 유전으로 탐사리스크가 거의 없음

＊ 회수가능 매장량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추를 통하여 원유 부존이 확인된 경우의 자원량. 향후 정밀평가를 거쳐 최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

□ 또한, 3개 유전은 '10.10～'11.6월간 석유공사 자체 기술진, 외부 전문가가 함께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개발 경제성을 확인

○ 캐나다 지엘제이(GLJ)社, 베이커 휴즈(Baker Hughes) UAE 支社와 함께 자원량을 평가

＊ 지엘제이(GLJ)社 : 캐나다 캘거리 소재 유전 탐사, 개발 전문 평가회사
베이커 휴즈(Baker Hughes)社 : 유전개발 관련 세계적 사업평가 서비스 회사

□ 육상 광구 중 개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유전(Area 1)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생산기간은 20년 정도로 예상

○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이르면 '14년부터 생산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기간 동안 3개 유전에서 일일 최대 4.3만 배럴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우리측 지분 물량 감안(일일 1만 7천배럴)시 자주개발물량은 '11년 자주개발물량(일일 46.5만 배럴) 대비 3.7% 수준까지 증대되고, 자주개발률이 0.5%p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생산될 물량은 비상시 100% 국내 도입이 가능토록 규정하여 자주개발물량을 실질적으로 '11년 자주개발물량(46.5만 배럴) 대비 9.2% 수준까지 증대시키고, 자주개발률 1.3%p 제고 효과도 기대

- 또한 우리측 지분 물량(일일 1만 7천배럴)은 그간 해외에서 확보한 원유 생산 물량만 놓고 볼 때 영국 다나(일일 4만 8천배럴), 캐나다 하베스트(일일 3만 8천 배럴)에 이은 세 번째 규모

  * 영국 다나와 캐나다 하비스트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소규모 광구로 구성된 점을 감안시 3개 광구로 이루어진 동 유전이 운영·관리가 보다 효율적

○ 향후 개발·생산을 위한 총 투자비로 약 50억불(한국 컨소시엄 20억불)이 소요될 전망

□ 3개 유전 중 2개의 육상 유전은 아부다비 전체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향후 기존에 원유가 발견된 지역 주변에서 추가 탐사 활동을 추진할 계획

○ 2개 육상유전(Area 1, Area 2) 사이에는 Bab, Bu Hasa, Asab 등 매장량 3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유전이 존재해 추가유전 발견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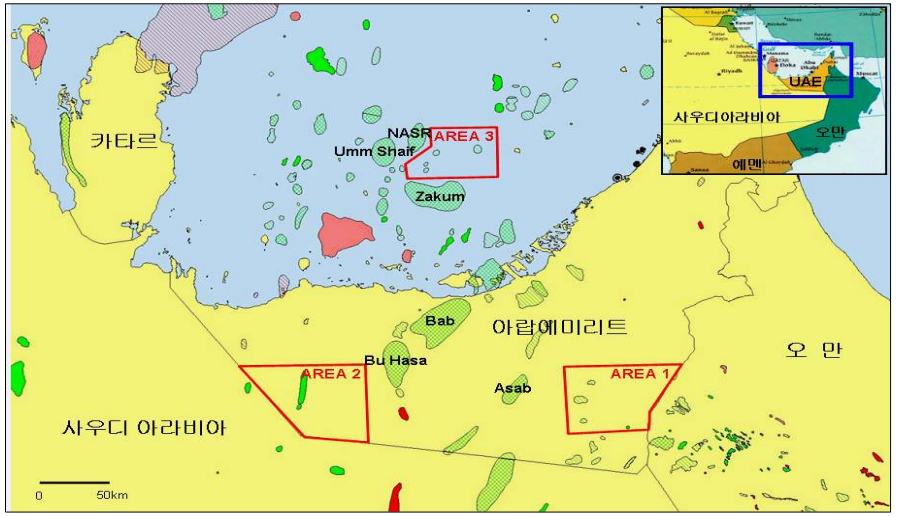
○ 또한 Area 1은 오만이 일일 9만 배럴을 생산 하고 있는 유전과 인접하고 있고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Area 2의 경우는 셰일오일 개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

  * 셰일오일 : 파쇄기법을 사용하여 근원암에서 직접 원유를 생산해 내는 최첨단 석유사업으로 최근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신속한 광구운영 개시를 위해 아부다비 운영 전담반을 최단 시일 내 현지에 상주시키고,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와 함께 개발에 착수할 예정

  * 현재 구성된 아부다비 운영 전담인력에 컨소시엄 참여사 인력을 추가 파견

< 대상광구 위치도 >



* 녹색 : 유전, 적색 : 가스전

< 평가와 전망 >

□ 한편, 이날 서명식에서 우리나라의 유전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동 경제의 관문인 UAE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전개발 분야의 첫 결실을 거둔 것을 축하하면서 "이번 계약 체결로 해외 자원개발 35년 역사에 불과한 우리에게 새로운 유전개발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UAE 아부다비 유전에 최초 진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09년 원전계약 체결 이후 양국간 성립된 '100년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평가

  * '09.12월 한국의 UAE 원전 수주 등을 계기로 원유 도입관계를 넘어 유전개발, 국방,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실무협상을 주도한 석유공사의 강영원 사장은 "자원확보의 최전방에 있는 담당자로서 오늘 제 손으로 최종서명을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구체적 결과를 보여드려 매우 기쁘다. 힘들고 답답한 순간도 있었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해 준 실무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글로벌

프리미어 지역에 진출한 것에 걸맞게 석유공사는 최고의 인재를 투입하여 GS와 함께 최고의 프로젝트로 키워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08년 現 정부 들어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수립하여 유전개발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 UAE측이 동 사업 참여를 인정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히면서 UAE 사업 참여를 모멘텀으로 삼아 세계 50위권의 글로벌 석유회사로 성장해 나갈 의지를 밝힘

□ 민간 기업으로 참여한 GS칼텍스의 허동수 회장은 "40년 석유·에너지 사업에 종사한 이래 가장 기쁜 날이다. 원유수입, 정유·판매 사업을 해오면서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UAE 석유개발 사업에 드디어 진출하게 되었다. 선진국들만이 진출해서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중동에서 가장 유망한 석유개발 지역으로 평가되는 UAE에 마침내 진출하게 되어 더욱 기쁘며, 향후 GS를 세계 최고의 석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디딤돌로 삼겠다"고 소감을 피력

□ 막후 협상을 주도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석유공사와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관계자들이 실무 협상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수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UAE 왕세자와 대통령 간 전화통화, 회담 등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특히,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번 계약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당초 서명식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일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왕세자궁에서 서명식 관계자들과 이례적으로 접견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여 양국간 협력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것은 아부다비 최고 통치권과 대한민국 대통령간의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표이다."라고 언급하였음

□ 그동안, UAE를 비롯한 중동국가와의 협력은 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왔으며 원전계약, 유전계약 등의 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음

○ 앞으로는, 그동안 에너지 협력을 통해 양국이 쌓아온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분야를 全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현재, UAE와는 지난 '09년 원전계약 이후, 정보통신(ICT),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그리드, IT의료 등도 상호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 평가

* 한-UAE 경협 사업 : 원자력·재생에너지·인력양성·ICT·조선·반도체 등 6개 분야에서 경협사업 발굴·추진 중(09.12~)

□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인 한국과 UAE의 협력전망은 매우 밝은 상황

○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기조로 삼는 한국과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UAE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많으며,

- 특히, UAE의 자본*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이 만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

* UAE 아부다비 투자청(ADIA)은 세계 최대 국부펀드 운영(약 6,300억불)

* UAE 아부다비 정부는 비석유 부문 촉진을 통한 무역균형 달성을 위하여 22개년 계획으로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발표('08.11월)

○ 무역강국(세계 9위)으로서의 위상, 근면 성실한 한국인의 이미지, 정상외교를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로 인해 UAE 또한 한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 관계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또한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해 Post oil 시대에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동지역 진출 기반도 확고히 함으로써 제2 중동붐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1 현 정부 출범 후 자원개발 성과와 평가

□ 현 정부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자원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정책을 추진

① 정권초기('08.6)부터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 등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수립, 단기간 내 규모의 경쟁력 확보 추진

②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탐사 광구에서 생산광구 인수· M&A 중심으로 전환, 자주개발률 제고를 도모

③ 중동,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역에 대한 정상급 자원외교를 추진

□ 이를 통해 석유·가스·광물의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35년 해외자원개발 역사에서 질적·양적 측면의 새로운 이정표 마련

① (석유·가스) '07년 4.2%에 불과했던 자주개발률은 '11년 13.7%를 기록, 특히 지난 4년간('08~'11) 확보한 자주개발물량(일일 34만 배럴)이 現 정부 출범 이전 확보된 물량(일일 12.5만 배럴)의 3배 수준으로 증가

* 50년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자주개발률이 '04년 이후 22~24% 수준에서 정체된 것과 비교할 때도 획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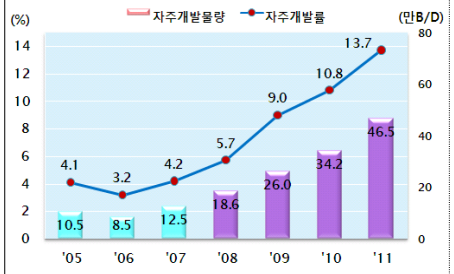
② (6대 전략광물) 전략광물 확보해도 역량을 집중한 결과 자주개발액은 3배('07년 39.3억불 → '11년 121억불), 자주개발률은 '07년 18.5%에서 '11년 29%로 크게 상승하고, 특히 '07년 0%였던 우라늄 자주개발률은 '11년 6.5%까지 확대

* 6대 전략광물 :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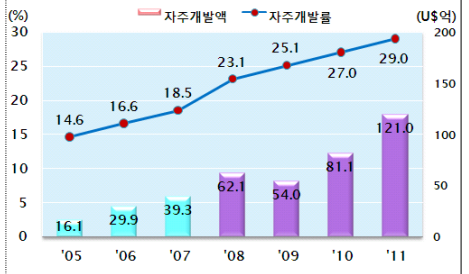
③ (新전략광물) 리튬·희토류 등 新전략광물은 '07년 6.1%에서 '11년 12%로 약 두 배 증가함에 따라 당초 '12년 목표(12%)를 조기에 달성

【참고】 한 눈에 보는 자원개발 산업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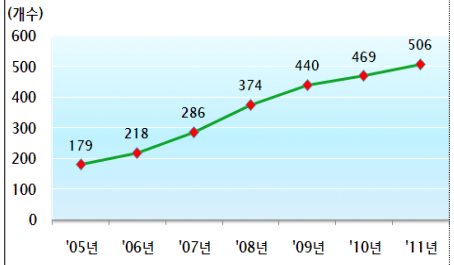
◈ 석유·가스 자주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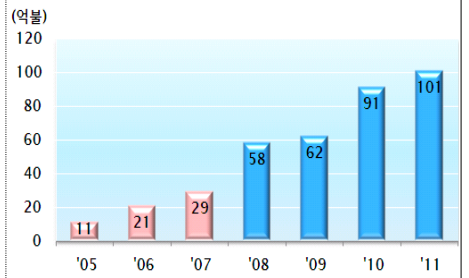
◈ 전략광물 자주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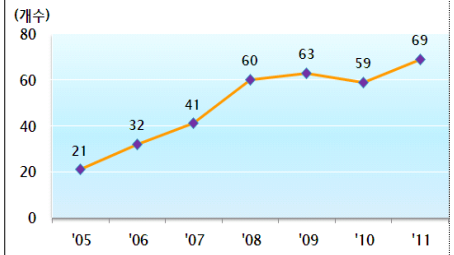
◈ 자원개발 진행사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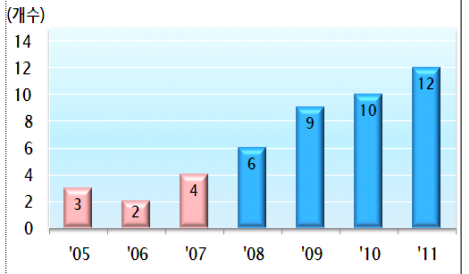
◈ 자원개발 투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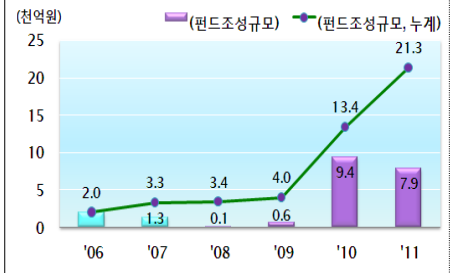
◈ 운영권 확보 유전사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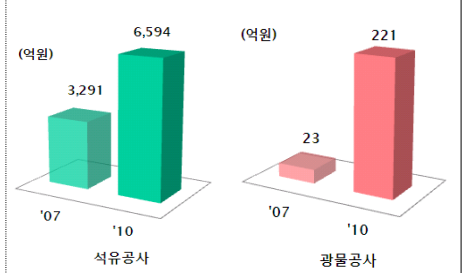
◈ 자주개발물량 1만 배럴 이상 유전사업 수



◈ 자원개발 펀드 조성규모



◈ 공기업 영업이익



참고 2 주요국별 석유매장량('10년)

□ 상위 석유매장량 국가(확인매장량 기준)

(단위 : 십억배럴)

순위	국가	물량	점유율(%)
1	사우디	264.5	19.1%
2	베네수엘라	211.2	15.3%
3	이란	137.0	9.9%
4	이라크	115.0	8.3%
5	쿠웨이트	101.5	7.3%
6	UAE	97.8	7.1%
7	러시아	77.4	5.6%
8	리비아	46.4	3.4%
9	카자흐스탄	39.8	2.9%
10	나이지리아	37.2	2.7%
11	캐나다	32.1	2.3%
12	미국	30.9	2.2%
13	카타르	25.9	1.9%
14	중국	14.8	1.1%
15	브라질	14.2	1.0%
16	앙골라	13.5	1.0%
17	알제리	12.2	0.9%
18	멕시코	11.4	0.8%
19	인도	9.0	0.7%
20	아제르바이잔	7.0	0.5%
전 세계		1,383.2	100.0%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6월 자료

□ 중동 국가별 석유매장량(확인매장량 기준)

(단위 : 십억배럴)

순위	국가	물량	점유율(%)
1	사우디	264.5	19.1%
2	이란	137.0	9.9%
3	이라크	115.0	8.3%
4	쿠웨이트	101.5	7.3%
5	UAE	97.8	7.1%
6	카타르	25.9	1.9%
7	오만	5.5	0.4%
8	예멘	2.7	0.2%
9	시리아	2.5	0.2%
10	기타	0.1	-
중 동		752.5	54.4%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6월 자료

참고 3 석유 자원량 분류

○ 매장량(Reserves) : 시추에 의하여 유가스의 부존이 확인되었으며, 상업성이 확인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된 유가스량

☞ 회수 확실성에 따라 P1(Proved, 확인매장량, 90%), P2(Probable, 추정매장량, 50%), P3(Possible, 가능매장량, 10%)로 구분

○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 : 시추에 의하여 유가스의 부존이 확인되었으나 상업성은 확인이 필요한 유가스량

○ 발견원시부존량(Discovered Petroleum Initially In Place) : 상업성 및 회수가능성 여부에 상관없이 시추에 의해 부존이 확인된 유가스량

○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 시추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으나 집적구조에서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한 유가스량

석유자원량 세부분류 체계도 (지경부 고시)

